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음 9월 13일) 제19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 전북 '최고'

▶ 시도별 진료비 현황

448만원으로 전국 평균 388만원보다 60만원 높아 '최저' 강원도는 348만원

김광수 의원 "고령화로 건보재정 압박 심화될 듯 안정성 대책 시급" 강조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빠르게 상승해 2016년 평균 388만원으로 65세 미만(89만원)의 4.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전북지역이 448만원으로 65세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388만원이며 전북이 44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광주전남(440만원), 부

산(437만원), 경남(4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348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 39.9%로 40%에 육박했으며 전남(52.0%), 전북(50.4%)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388만원으로 65세 미만 89만원에 비해 4.3배가 높았고 2012년 301만원에 비해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 또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2012년 16조 4493억원에 비해 5년새 52%가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범망 피하다 달미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계속 검찰 끝끝을 비켜갔던 박근혜정부 '문고리 2인방'이 지난 31일 결국 달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문고리 2인방은 이재만(6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

(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면 반드시 이들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최측근으로 행세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시립예술단원들의 연습공간 문 열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원들, 지역 문화예술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립예술단 연습전용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사위, 청문회 8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11월 8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감사단과 협의를 거쳐 11월8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흠결이 없어 청문회를 무사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8일 유 후보고 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25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청안을 제출했다. /뉴스1

전주시, 내년 2월까지 청년활동수당 지급

50명에게 월 50만원씩 1인당 150만원... 만29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전주시가 전북도내 최초로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청년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청년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청년희망도시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11월부터 만19세~만29세 미취업 청년 5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취업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취업 프로젝트는 기존의 청년지원사업 대부분이 구직활동과 같은 노동시장 이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앞서 시행된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과는 달리 청년들의 내적 치유와 기본 생활보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 참여 청년들을 모집한 후 먼저 심리상담 전문가와 사회적 및 자존감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잇따라 취업 실패로 근로 의욕이 약화되고 삶에 대한 상실감과 자존감

성한 에세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청년취업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시 창업청년지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wirsu052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656)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산산업부장은 "전주시의 청년들이 청년취업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로 상처받고 소진된 심리를 치유하고,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라며 "전주시와 청년의 눈맞춤을 통해, 향후 지역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모바일완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착공 (2017.10.30)

15만 자족도시 완주市

미래 100년의 시작

전라북도 완주군 효성 DAESANG 동서건설(주) (주)오에스개발 신성건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완주테크노밸리(주) Wanju Techno Valley Co., Ltd.